

##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과 우울\*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우울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결혼만족도, 의사소통행동,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서울 및 서울근교의 기혼여성 117명과 기혼남녀 112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비판, 우울, 과거 우울력, 부부관계 적응, 역기능적 태도, 자아존중감, 완벽주의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비판은 검사재검사에서 신뢰도가 적당한 것으로( $r = .60, p < .001$ ) 나타났다.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우울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이 있었으며, 또 지각된 비판과 부부관계 적응사이에도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났으며, 나아가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3개월 뒤 우울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역기능적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이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완벽주의와는 유의한 상관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결혼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63쌍을 대상으로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 결혼만족도 및 의사소통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 1과는 달리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증상간에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들의 경우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및 의사소통행동과의 상관관이 높게 나타났다. 남편들은 부인이 불평, 변화요구, 말 가로막기, 부정적 감정표현 등 부정적 의사소통행동을 많이 보일 때와 협상, 수용, 긍정적 감정표현 등 긍정적 의사소통행동을 적게 보일 때 배우자 비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관계지향성 성격유형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이에 비해 부인들의 경우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남편의 말 가로막기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민을 대상으로 할 때 지각된 비판과 우울증상간의 관계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배우자 비판을 지각하는 과정에 성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 본 연구는 1999년 교내 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이 연구에 연구조교로 참여하여 통계처리를 도와준 이종선과 자료수집을 도와준 유성은, 노은이, 임승탁에게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권 정 혜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136-701 / TEL : 02-3290-2067 / E-mail : junghye@mail.korea.ac.kr

Vaughn과 Leff(1976)는 정신분열병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환자의 부모나 배우자를 병원에 불러 집중적으로 면담하고, 면담 중에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인지, 혹은 적대적인지, 그리고 과도하게 개인적인지 환자가족의 말과 행동을 평정하여 수량화한 후 이를 표현된 감정(Expressed Emotion, EE)이라고 불렀다. 표현된 감정은 이후 많은 연구에서 정신분열병 뿐만 아니라 우울증의 재발 위험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로 알려졌다(Cooper, Paykel, Vearnals, & Ramana, 1997; Hooley, Orley, & Teasdale, 1986; Okasha, El Akbawi, Snyder, Wilson, Youssef, & El Dawla, 1994). 그렇지만 임상에서 표현된 감정을 측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2시간이상이 걸리는 면담(Camberwell Family Interview)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든다. 또한 녹음된 면담결과를 듣고 표현된 감정을 신뢰롭게 평정하기 위해서는 평정자를 장기간 훈련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Hooley와 Teasdale(1989)는 표현된 감정의 세 요인 중 가장 빈번히 표현되는 감정인 비판성을 환자 자신의 자기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지각된 비판(Perceived Criticism) 척도를 개발하였다. 표현된 감정은 가족들이 면담 중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한 비판성, 적대성, 과잉개입도를 평정하여 얻어진 측정치인 반면, 지각된 비판은 환자 스스로가 가족들이 자기를 얼마나 비판한다고 느끼는지 보고하도록 하여 얻은 측정치라고 볼 수 있다. 지각된 비판 척도의 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Hooley와 Teasdale(1989)은 입원해 있는 단극성 우울증 환자의 가족을 면담하여 표현된 감정을 평정하고, 환자에게는 자기보고 질문지를 주어 지각된 비판과 결혼만족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환자들을 9 개월 후 추수 면담하여 재발여부를 조사하고, 입원시 측정된 표현된 감정, 지각된 비판, 결혼만족도가 재발을 예측하는지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상관분석에 의하면 세 변인 모두 재발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중다회귀분석 결과 표현된 감정이나 결혼

만족도에 비해 환자의 지각된 비판이 재발에 대한 예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시기에 Cole과 Kazarian(1988)도 표현된 감정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는 60개 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표현된 감정 척도(Level of Expressed Emotion, LEE)를 Gerlsma와 Hale(1997)가 수정하여 총 38개 문항의 척도로 만든 후 주요 우울증 환자의 증상변화를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환자의 6개월 후 Beck 우울척도 점수변화와 LEE 총점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Hooley와 Teasdale(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자기보고를 통한 측정된 표현된 감정(EE) 특히 지각된 비판이 우울증상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지각된 비판이 우울증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각된 비판 척도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우울증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후속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각된 비판 척도(Hooley & Teasdale, 1989)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후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하고, 둘째, 지역사회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우울증상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셋째, 지각된 비판이 결혼만족도,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 공격행동 등과 상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각된 비판과 개인내 특성들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 연구 1

본 연구는 Hooley와 Teasdale(1989)에 의해 개발된 지각된 비판 척도를 한글로 번역한 후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하고,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지각된 비판과 결혼만족도 및 우울증상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우리나라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반복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지각된 비판이 각 개인의 눈을 통해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행동을 측정하므로 개인내 특성인

완벽주의, 역기능적 태도 및 자기존중감이 지각된 비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Hooley와 Teasdale(1989)에서는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은 배우자가 면접 중에 표현한 부정적 감정, 즉 표현된 감정과 높은 상관( $r = .51$ )을 보였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와도 높은 상관( $r = -.49$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의 비판행동이 줄어들고, 또 배우자의 비판행동이 적을 때 좋은 부부관계를 가지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각된 비판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부부관계, 표현된 감정, 지각된 비판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세 변인 모두 우울증을 예측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현된 감정과 부부관계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우울증을 예측해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권정혜, 1997; Cooper, Paykel, Vearnals, & Ramana, 1997; Hooley, Orley, & Teasdale, 1986; Monroe, Bromet, Connell, & Steiner, 1986; Okasha, El Akbawi, Snyder, Wilson, Youssef, & El Dawla, 1994). 그런데 Hooley와 Teasdale 연구 결과를 보면 이들 세 변인 중에서 지각된 비판이 우울증의 재발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결혼만족도와 표현된 감정은 지각된 비판을 먼저 독립변인으로 넣었을 때 우울증의 재발을 부가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였지만, 지각된 비판은 결혼만족도와 표현된 감정을 먼저 투입하고 그 후에 독립변인으로 포함된 후에도 여전히 우울증의 재발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배우자의 실제 비판행동보다도 환자 스스로에 의해 지각된 비판이 우울증의 재발에 더 강력한 예측인자라는 점을 말해준다.

Hooley와 Teasdale 연구결과는 배우자의 비판행동이 높지 않아도 환자의 지각된 비판이 높을 때 재발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임상장면에서 우울증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환자의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이 높다면 치료자는 배우자의 행동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환자의 사고 틀을 다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개인내의 어떤 사고 특성이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관련이 깊은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나 역기능적 태도, 혹은 낮은 자기존중감과 배우자 비판에 대한 지각사이에 상관 높으리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진 개인은 지나치게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이 기대수준에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Hewitt & Flett, 1991). 이들은 비현실적인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기대수준의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성취에 의해 자기평가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받으려는 욕구가 많아 자신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않는 수행은 실패로 해석하기 쉽다.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기대수준 자체가 높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남들의 사소한 비판을 확대하여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성격특성을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각된 비판 수준도 높으리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역기능적 태도는 자기가치에 대해 가지는 조건적이고도 부정적인 태도나 왜마를 지칭하며, 우울증에 취약성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Weissman & Beck, 1978). 역기능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높은 성취나 수행을 통해서만 자기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없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부여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나 사랑을 받는 정도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 따라서 역기능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 상대방의 비판행동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태도를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각된 비판수준도 높으리라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쉽다고 가정하였다. 자기 자신이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남들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더라도 이것을 확대해석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대조적으로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비판이나 비난을 무비판적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지각된 비판 수준이 높아지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째, 지각된 배우자 비판, 부부관계가 우울증상을 예측해주는지 살펴보고, 둘째,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부부관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완벽주의, 역기능적 태도, 자기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주부우울증 연구(유성은, 권정혜, 1997)에 참여한 기혼여성 117명과 결혼생활만족도 연구(노은여, 권정혜, 1997)에 참여한 기혼남녀 112명(남성: 67명,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남성의 경우 34.25세(표준편차: 8.53)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38.61세(표준편차: 11.14)였다.

### 평가도구

지각된 비판 척도<sup>1)</sup>. Hooley & Teasdale(1989)에 의해 개발된 지각된 비판 척도를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에게 얼마나 비판적입니까?”의 한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비판적이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비판적

이다’까지 10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Beck 우울 척도(BDI). 우울 증상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BDI 한국판을 일부 수정하여(김은정과 권정혜, 1998)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4가지 진술문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가 주어지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가 .87이었다.

부부관계 적응 척도(DYAS). 결혼생활 적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Spanier(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의 우리말 번역판인 부부관계 적응척도(이민식과 김중술, 1995)를 사용하였다. 부부관계 적응척도는 부부간 의견일치, 관계에 대한 만족, 응집력, 애정 표현을 재는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가 .88이었다.

완벽주의 척도(MPS). Hewitt과 Flett(1991)의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MPS)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5문항으로 각 문항의 진술문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3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노은여와 권정혜, 1997).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5 였다.

역기능적 태도 척도(DAS).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적응적인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Dysfunc-

1) 지각된 비판척도가 배우자의 비판을 지각한 정도를 평정한 것이므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이라고 풀어서 기술하기도 하였음.

tional Attitude Scale(Weissman & Beck, 1978)를 Kwon(1992)이 한글로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적으로 반대한다'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권석만(1994)에 기초하여 성취지향성 요인과 타인의존성 요인으로 구분하고 두 개의 하위척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82과 .85로 나타났다.

## 절차

주부 우울증 연구 자료는 서울과 성남지역에 있는 3개 중고등학교 학교 당국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뒤 학생들의 어머니로 하여금 설문지를 작성해 오도록 하였다. 1차 설문지에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 과거 우울력을 조사하는 문항들과 지각된 비판척도, Beck 우울척도, 완벽주의 척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3개월 후에 실시된 2차 설문지에는 지각된 비판척도, Beck 우울척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혼만족도 연구 자료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들에게 개별적 접촉을 통해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물어보고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는 지각된 비판척도, Beck 우울척도, 부부관계 적응척도, 역기능적 태도척도, 자아존중감 척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평균 13일 이후에 실시된 2차 조사에는 1차 조사에 실시한 설문지를 반복 실시하였다.

## 결과 및 논의

### 지각된 비판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본 척도는 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재검사 방법을 통해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먼저 본 척도를 13일의 간격을 두고 109명의 기혼 남녀에게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66( $p < .01$ )의 신뢰도 계수를 얻었다. 다음으로 본 척도를 3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117명의 기혼여성에게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60( $p < .01$ )의 신뢰도계수를 얻었다. 이 결과는 Hooley와 Teasdale(1989)에서 3개월 간격을 두고 본 척도를 실시했을 때 .60의 상관계수를 얻은 결과와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본 척도가 단 한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안정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증상

지각된 비판 척도 점수가 우울증상을 예측하는지 분석하기 전에 우선 같은 시기에 측정된 우울증상과 상관성이 있는지 주부우울증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차 평가에서 측정된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은 같은 시기에 측정된 우울증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121) = .31, p < .01$ , 2차 평가에서 측정된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과 같은 시기의 우울증상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127) = .35, p < .01$ . 이 결과는 공식적으로 측정된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증상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이 기혼여성의 3개월 후 우울증상과 관계가 있는지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평가에서 측정된 지각된 비판과 3개월 뒤 측정된 우울증상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r(121) = .19, p < .05$ . 한편 중다회귀분석은 1차 평가에 포함된 지각된 배우자 비판, 완벽주의, 우울 증상을 독립변인으로, 3개월 후에 측정된 2차 우울 증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우울 증상, 완벽주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2차 우울 증상의 37%를 설명하였고,  $F(3, 117) = 23.18, p < .001$ , 그 중에서 1차 우울 증상만이 2차 우울 증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9, t = 7.71, p < .001$ . 이러한 결과는 1차와 2차의 우울 증상을 모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했으며,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2차 우울증상의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은 1차 우울 증

표 1. 3개월 후 우울증상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R <sup>2</sup>	ΔR <sup>2</sup>	Beta	F	t	유의도
1차 우울증상	.362	.362	.59	67.44	7.71	.000
완벽주의	.373	.001	.11	35.05	1.43	.155
지각된 배우자비판	.373	.000	-.01	23.18	-0.14	.889

  

예언변인	R <sup>2</sup>	ΔR <sup>2</sup>	Beta	F	t	유의도
완벽주의	.028	.028	.14	3.46	1.49	.139
지각된 배우자비판	.054	.026	.16	3.38	1.80	.074

  

예언변인	R <sup>2</sup>	ΔR <sup>2</sup>	Beta	F	t	유의도
완벽주의	.028	.028	.167	3.70	1.92	.057

  

예언변인	R <sup>2</sup>	ΔR <sup>2</sup>	Beta	F	t	유의도
지각된 배우자비판	.036	.036	.19	4.50	2.12	.036

상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고되어 다분히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차 시기에 측정된 우울증상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과연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완벽주의만으로 3개월 후 기혼여성들의 우울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차 우울증상을 제외하고 지각된 비판과 완벽주의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완벽주의가 2차 우울증상의 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F(2, 118) = 3.38, p < .05$ , 지각된 배우자 비판의 설명력이 유의도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6, t = 1.80, p = .074$ .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인인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완벽주의사이의 상관으로 인해 표준오차가 증가해  $t$  값이 낮아진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각된 비판을 단독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2차 우울증상의 4%를 설명하고,  $F(1, 119) = 4.50, p < .05$ , 지각된 배우자 비판의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9, t = 2.12, p < .05$ (표 1 참조).

####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부부관계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이 부부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결혼만족도 연구 자료를 가지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측정된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부부관계 적응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109) = -.62, p < .01$ . 2차 평가의 경우에도 두 변인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11) = -.66, p < .01$ . 또한 1차 평가에서 측정된 지각된 비판과 약 2주 후의 부부관계 적응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09) = -.53, p < .01$ . 즉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부부관계 적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완벽주의, 자아존중감 및 역기능적 태도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개인내 특성인 완벽주의, 자아존중감 및 역기능적 태도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부우울증 연

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완벽주의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127) = .08$ . 다음으로 결혼만족도 연구 자료를 가지고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남성과 여성 각각과 남, 여 전체를 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비판과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r(66) = -.13$ , 여성의 경우,  $r(43) = -.23$ , 전체,  $r(109) = -.16$ .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역기능적 태도간의 관계를 결혼만족도 연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두 변인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r(111) = .23, p < .05$ . 역기능적 태도를 성취지향성 요인과 타인의존성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각된 비판과 성취지향성 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r(105) = .30, p < .01$ , 타인의존성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109) = .14$ . 요약하면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완벽주의나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반면, 역기능적 태도, 특히 성취지향성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2 참조).

연구 1의 결과를 요약해 본다면, 지각된 비판은 단 한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지만 비교적 안정된 척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같은 시기의 우울증상 및 3개월 후 우울증상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중다회귀분석 결과 3개월 후 우울증상에 대한 예언력도 유의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비판적이라고 지각하는 사람의 경우 우울증상

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지각된 비판 척도가 기존자들의 우울증상이 높아질 위험을 예견해 주는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부부관계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배우자의 비판을 지각하는 개인의 역기능적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비판에 있어서 부부관계에서 생겨나는 배우자의 비판행동 뿐 아니라 배우자의 행동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인지적 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연구 2

연구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부부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배우자의 비판이 부부관계라는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지각된 배우자 비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부부관계의 구체적 과정인 부부간 의사소통행동이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부부간 의사소통행동 중 어떤 행동과 상관이 높은지 알아보고, 아울러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부부간의 의사소통행동간의 관계가 남편과 부인에게서 같은지 살펴보는 것이다.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우울증 재발에 대한 강력한 예측요인이라는 선행연구(Hooley & Teasdale, 1989)결과를 고려할 때 우울증의 재발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각된 배우자 비판을 낮추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관계있는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지각된 배우자의 비판을 감소시키는데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완벽주의, 자아존중감 및 역기능적 태도와의 상관관계

	지각된 배우자 비판		
	전체	남자	여자
완벽주의			.08( $n=127$ )
자아존중감	-.16( $n=109$ )	-.13( $n=66$ )	-.23( $n=43$ )
역기능적 태도	.23*( $n=111$ )	.18( $n=67$ )	.29( $n=44$ )

\* $p < .05$ .

## 방법

###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결혼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63

쌍이었다. 평균 연령은 남자 30.06세(표준편차 3.18)과 여자 28.19세(표준편차 2.43)이며, 평균 결혼기간은 32.57개월(표준편차 23.16)이었다.

## 평가도구

지각된 비판 척도 본 척도는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에게 얼마나 비판적입니까?"의 한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비판적이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비판적이다'까지 10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부부관계 적응 척도 Spanier(1976)가 개발한 Dyadic Adjustment Scale(DAS)의 우리말 번역판인 '부부관계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이민식, 김중술, 199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생활의 구체적인 하위 영역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Snyder(1997)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Revised(MSI-R)를 권정혜와 채규만(1998)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 중 부부간의 의사소통 행동과 관련된 하위 척도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배우자의 공격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는 .83, .80, .71이었다.

한국판 부부갈등 평정체계. 각 개인의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객관적 관찰평정을 위해서 Heavey와 Layne 및 Christensen(1993)이 개발한 Conflict Rating System(CRS)를 임승락과 권정혜(1998)가 우리나라 부부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한 '한국판 부부갈등 평정체계(K-CRS)'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부부갈등 평정체계는 각 갈등 상황 당 약 15분 정도의 논의에 대한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각 행동의 발생빈도를 측정하고, 녹음의 청취가 끝난 후 각 배우자가 15개 영역의 특정행동을 나타낸 정도를 9점 척도로 평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요구행동', '철수행동', '긍정적 의사소통', '부정적 의사소통' 하위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72, .85, .87, .77이었다.

성격유형척도. Robin, Ladd, Welkowitz, Blaney, Diaz, 및 Kutcher(1994)에 의해 개발된 Personal Style

Inventory(PSI)의 우리말 번역판(김영미;1988)을 사용하였다. 성격유형 척도는 관계지향성, 자율지향성의 두 가지 성격특성을 6점 척도로 측정하는 48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관계지향성, 자율지향성 소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5, .83이었다.

## 절차

임상심리학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부부들의 집을 방문하여 설문지와 의사소통에 대한 녹음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에 대한 녹음은 관찰자없이 부부 단들이 있는 방에서 현재 결혼생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3가지 문제에 대해 약 30분간 이야기하도록 하여 녹음하였다. 자세한 절차는 임승락과 권정혜(1998)에 기술되어 있다.

## 결과 및 논의

###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증상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지각된 비판과 우울증상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증상사이에 .21의 상관이 있었으며( $p < .10$ ),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 = -.16$ .

###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결혼만족도

지각된 비판과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정서적 의사소통 만족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도, 배우자의 공격 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남편과 부인 각각에 대해서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남편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남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자신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r(63) = -.40, p < .01$ ,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r(63) = .41, p < .01$ ,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표 3. 남편/부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결혼생활 만족도의 상관관계

	지각된 비판	전반적 결혼만족도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배우자의 공격행동
		DAS	K-MSI		
전반적 결혼만족도	-.40** (-.11)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41** (.14)	-.46** (-.76**)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33** (-.22)	-.49** (-.60**)	.60** (.65**)		
배우자의 공격 행동	.29* (-.22)	-.21 (-.24)	.43** (.23)	.56** (.35**)	
남편의 평균(표준편차)	4.19(2.15)	107.73(11.57)	3.02(2.81)	7.60(4.50)	1.52(1.63)
부인의 평균(표준편차)	3.90(2.25)	107.75(12.30)	4.97(3.28)	7.51(3.66)	1.97(2.18)

주. 1. 위의 값은 남편(n=63)의 상관계수, 아래의 괄호 안 값은 부인(n=63)의 상관계수.

\*  $p < .05$ . \*\*  $p < .01$ .

$r(63) = .33, p < .01$ , 배우자의 공격 행동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r(63) = .29, p < .05$ . 한편 부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자신의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r(63) = -.11$ ,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r(63) = .14$ ,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r(63) = -.22$ , 배우자의 공격 행동,  $r(63) = -.22$ ,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평정된 부부간 의사소통행동

다음으로 지각된 비판과 평정된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편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남편 자신의 철수행동,  $r(63) = .35, p < .01$ , 부인의 요구행동,  $r(63) = .33, p < .01$ ,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  $r(63) = -.40, p < .01$ ,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  $r(63) = .32, p < .05$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부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남편의 의사소통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부인 자신의

요구행동과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r(63) = .27, p < .05$ .

다음으로 부부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세부적인 의사소통행동과 지각된 비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편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남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부인의 대다수 의사소통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남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다음과 같은 부인의 의사소통행동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비난행동,  $r(63) = .43, p < .01$ , 요구행동,  $r(63) = .33, p < .01$ , 부정적인 감정표현,  $r(63) = .34, p < .01$ , 무시하는 행동,  $r(63) = .28, p < .05$ , 말을 가로막는 행동,  $r(63) = .28, p < .05$ . 또한 남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다음과 같은 부인의 의사소통행동들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긍정적인 정서표현,  $r(63) = -.47, p < .01$ , 협상 행동,  $r(63) = -.32, p < .01$ , 진솔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행동,  $r(63) = -.29, p < .01$ , 경청하는 행동,  $r(63) = -.28, p < .05$ , 부인의 수용행동,  $r(63) = -.25, p < .05$ . 이와 함께 남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일부 자신의 의사소통 행동과도 상관이 높았다. 남

표 4.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평정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남편의 지각된 비판										
2 남편의 요구행동	-.07									
3 남편의 철수행동	.35**	.01								
4 남편의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	-.24	.27*	-.41**							
5 남편의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	.13	.62**	.49**	-.07						
6 부인의 지각된 비판	.06	.12	.12	.09	.24					
7 부인의 요구행동	.33**	.36**	.62**	.06	.47**	.27*				
8 부인의 철수행동	.01	.41**	.02	-.10	.20	.07	-.09			
9 부인의 긍정적 의사소통 행동	-.41**	.19	-.30**	.64**	.01	.02	-.10	-.29*		
10 부인의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	.32*	.34**	.50**	-.17	.69**	.21	.55**	.22	-.37**	
평균	4.19	8.68	8.99	10.73	5.37	3.90	11.55	5.85	11.04	6.40
표준편차	2.15	2.82	3.84	4.33	2.41	2.25	3.65	1.95	4.47	2.87

주. 남편(n=63), 부인(n=63).

\*  $p < .05$ . \*\*  $p < .01$ .

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남편 자신이 논의에서 철수하는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63) = .36, p < .01$ , 방어적인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63) = .29, p < .05$ , 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행동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63) = -.33, p < .01$ .

이와 대조적으로 부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대체적으로 남편의 세부적 의사소통행동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왔다. 부인이 지각하는 배우자의 비판은 자신의 행동 중에서는 불평하는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63) = .28, p < .05$ , 자신의 말 가로막기 행동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63) = .26, p < .05$ , 남편의 의사소통행동 중 이야기를 가로막는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r(63) = .26, p < .05$ .

다음으로 남편과 부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을 중

속변인으로 하고 의사소통 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인의 긍정적 감정표현과 부인의 불평행동이 남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변인이 전체 변량의 29%를 설명하였다. 부인의 지각된 비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부인 자신의 불평, 철수, 협상, 방어행동과 남편의 방어, 말 가로막기, 진술한 의사소통행동이 합쳐 전체 변량의 43%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표 7과 같다.

####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성격유형

마지막으로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성격유형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표 5.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세부적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의 상관관계

		남편의 지각된 비판	부인의 지각된 비판	평균	표준편차
남편의 의사소통행동	논의	-.24	-.03	3.79	1.24
	불평	.14	.11	2.55	1.38
	변화 요구	.01	.18	2.30	1.10
	회피	.24	.10	2.28	1.32
	철수	.36**	.12	2.98	1.73
	방어	.29*	.09	3.72	1.43
	협상	-.13	.08	2.12	0.96
	경청	-.33**	.02	2.82	1.58
	수용	-.15	.21	2.26	1.08
	긍정적 감정표현	-.20	.14	1.86	0.88
	진솔한 의사소통	-.06	-.08	1.67	0.75
	인신공격	.08	.09	1.09	0.29
	말 가로막기	.24	.28*	1.58	0.88
	무시	.02	.19	1.38	0.89
	부정적 감정표현	.07	.19	1.31	0.73
	부인의 의사소통행동	논의	-.10	.12	4.15
불평		.43**	.28*	4.26	2.09
변화 요구		.33**	.17	3.07	1.24
회피		-.09	.05	1.46	0.66
철수		.02	.22	1.57	0.75
방어		.05	-.05	2.82	1.22
협상		-.32**	.09	1.80	0.79
경청		-.28**	.04	3.21	1.99
수용		-.25**	.12	2.19	0.96
긍정적 감정표현		-.47**	-.11	2.34	1.17
진솔한 의사소통		-.29*	-.08	1.50	0.68
인신공격		.12	.17	1.26	0.65
말 가로막기		.25*	.26*	1.72	0.84
무시		.28*	.20	1.67	0.91
부정적 감정표현		.34**	.09	1.75	1.09

주. 남편(n=63), 부인(n=63).

\*  $p < .05$ . \*\*  $p < .01$ .

표 6. 남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R	R <sup>2</sup>	ΔR <sup>2</sup>	β	F	t
부인의 긍정적 감정표현	.47	.22		-.36	17.58***	-3.00**
부인의 불평	.54	.29	.07	.29	12.33***	2.39*

주. N=63.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7. 부인의 지각된 배우자 비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R	R <sup>2</sup>	ΔR <sup>2</sup>	β	F	t
자신의 불평	.28	.08		.73	5.27*	4.48***
자신의 철수	.38	.14	.06	.48	5.00**	4.20***
자신의 협상	.46	.21	.05	.44	5.28**	3.55***
남편의 방어	.53	.29	.08	-.62	5.78***	-3.80***
남편의 말 가로막기	.58	.34	.05	.35	5.75***	2.84**
남편의 진솔한 의사소통	.62	.38	.04	-.28	5.86***	-2.42*
부인의 방어	.66	.43	.05	-.23	5.90***	-2.04*

주. N=63.

\*  $p < .05$ . \*\*  $p < .01$ . \*\*\*  $p < .001$ .

보았다. 먼저 남, 여 전체를 합하여 상관분석을 해본 결과,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관계지향성 그리고 자율지향성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지각된 비판과 성격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남, 여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남편의 경우에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관계지향성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63) = .35, p < .01$ , 지각된 비판과 자율지향성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63) = .06$ . 부인의 경우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관계지향성,  $r(63) = .01$ , 그리고 자율지향성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r(63) = -.02$ .

연구 2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나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부부간 의사소통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부인에게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남편에게 있어서는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전반적 결혼만족도, 의사소통만족도가 서로 부적인 상관이 높은 반면, 부인에게 있어서는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전반적 결혼만족도 및 의사소통 만족도와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경우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배우자 즉 부인의 여러 의사소통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인의 경우에는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말 가로막기 행동과만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비

판을 지각하는데 근거하는 자료가 남편과 부인에게 있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종합 논의

본 연구 결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증상간에 일관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1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높을수록 같은 시기의 우울 점수가 높을 뿐 아니라 3개월 뒤의 우울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결혼기간 7년 이내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 사이의 공시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성에게서는 이런 경향성이 나타났지만 여성에게서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1과 연구 2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령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1에서는 40대 중년여성들이 주 연구대상이었으며, 연구 2에서는 30대의 기혼남녀가 주 연구대상이었다. 따라서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간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결혼기간이 짧은 30대 기혼남녀에게는 배우자로부터 오는 비판을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간의 상

판이 결혼기간이 긴 중년여성보다 더 낮게 나왔을 수 있다. 입원한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Hooley와 Teasdale(1989)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연령평균이 47세였으며, 평균 결혼기간이 22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지각된 비판이 우울증의 재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지만, 지각된 비판과 BDI를 통해 측정된 우울증의 심도와는 유의한 상관관을 보여주지 않았다. 한편 Cooper와 그 동료들(1997)에서는 외래 환자들의 6개월 뒤의 우울증의 심도와 지각된 비판이 유의한 상관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지각된 비판이 우울증 환자에게 있어 우울증의 재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우울증상과의 상관관계는 환자의 우울증 심도나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증상간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달라진다면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 2에서는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개인내 특성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역기능적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이 있었으며, 특히 성취지향적 역기능적 태도와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높을 때 경직된 성취지향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역기능적 태도가 더 지속적인 개인의 신념과 가정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이 지나치게 경직된 성취지향적 역기능적 태도를 가질 때 배우자의 사소한 잔소리나 무시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연구 1에서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자기존중감이나 완벽주의 특성과는 상관관이 낮게 나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완벽주의는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역기능적 태도는 자기평가에 대한 조건적이고도 융통성없는 신념을, 자기존중감은 자기평가의 절대수준을 측정하는 변인이

라고 볼 때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자기평가의 절대수준이나 무조건적으로 높은 기대수준보다는 자기가 치감에 대한 조건적이고도 성취지향적인 태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나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부부간의 의사소통행동간의 관계에 뚜렷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지각된 비판은 부인의 불평, 변화요구, 협상, 경청, 및 수용의 결여 등 배우자의 여러 의사소통행동과 상관관이 높았고, 결혼만족도와도 높은 상관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지각된 비판은 결혼생활내에서 일어나는 부부관계 과정 즉 의사소통이나 부부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관계지향성과 지각된 비판과의 상관관이 남편에게서만 높게 나온 것은 대인관계에 많은 가치를 두는 남편일수록 배우자 비판을 높게 지각하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지각된 배우자 비판이 높을수록 관계지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관계지향적 성격특성이 보다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인 변인이라고 볼 때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남성들의 경우 지각된 배우자 비판은 부부관계내 대인관계과정에 더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인의 경우 배우자의 비판을 지각하는데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과정외에 더 여러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요인들이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이 비판으로 지각되는 과정에 관여하는지 좀 더 미세한 수준에서 연구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지각된 비판과 우울증상간의 관계를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 연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각된 비판을 한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기보다 같은 개념을 재는 문항들을 더 보완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후속연구를 통해 지각된 비판 척도를 개선하고, 지각된 비판과 우울간의 관계를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각된 비판이 우리 나라 우울증 환자의 재발을 예측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반복 검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의 행동이 지각된 비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경험적인 자료를 축적한다면 우울증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정혜(1997). 심리사회적 요인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 산후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취약성 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55-66.
- 권정혜, 채규만(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40.
- 김영미(1988). Multiple Somatizer에 관한 임상적 연구: Somatization disorder의 임상적 적용을 위한 연구(I). *신경정신의학*, 20, 423-432.
- 김은정, 권정혜(198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취약성: 사회성 및 자율성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55-169.
- 노은여, 권정혜(1997). 결혼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II.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41-54.
- 유성은, 권정혜(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67-84.
- 이민식, 김중술(1995). 부부관계 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91-299.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임승락, 권정혜(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 성차, 요구 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98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109-123.
- 전경구, 이민규(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 65-76.
- Cole J. D., & Kazarian, S. S. (1988). The level of expressed emotion scale: A new measure of expressed emo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392-397.
- Cooper, H. Z., Paykel, E. S., Vearnals, S., & Ramana, R. (1997). Expressed emotion and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1, 439-443.
- Gerlsma, C., & Hale III, W. W. (1997). Predictive power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Level of Expressed Emotion(LEE) scale: Depressed outpatients and couples from the general commun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0, 520-525.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Hewitt, P. L., & Flett, G. L. (1991).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98-101.
- Hooley, J. M., Orley, J., & Teasdale, J. D. (1986). Levels of expressed emotion and relapse in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8, 642-647.
- Hooley, J. M., & Teasdale, J. D. (1989). Predictors of relapse in unipolar depressives: Expressed emotion, marital distress, and perceived criticis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29-235.
- Okasha, El Akabawai, A. S., Snyder, K. S., Wilson, Youssef, & El Dawla(1994). Expressed emotion, perceived criticism and relapse in depression: A replication in an Egyptian commun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1, 1001-1005.
- Monroe, S. M., Bromet, E. G., Connell, M. M., & Steiner, S. C.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one year prospec-

- 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24-431.
- Robin, C. J., Ladd, J., Welkowitz, J., Blaney, P. H., Diaz, R., & Kutcher, G.(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 277-301.
- Snyder, D. K.(1997).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MSI-R)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Spanier, G.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Vaughn, C. E., & Leff, J. P. (1976). The influence of family and social factors on the course of psychiatric illness: A comparison of schizophrenic and depressed neurotic patient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9, 125-137.
- Weissman, A.V., & Beck, A. T.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Toronto, Canada.
- 원고접수일 2000. 2. 19  
수정원고접수일 2000. 7. 27  
게재결정일 2000. 9. 14 ■

## **Perceived Criticism and Depression**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riticism and depression.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criticism, dyadic adjustment, and dyadic communication behaviors were examined. In Study 1, participants of the Sample 1 were 117 married women and completed measures of perceived criticism, depressive symptoms, and perfectionism. Follow-up data on the perceived criticism and depression were collected after 3 months. Participants in the Sample 2 consisted of 112 married men and women and completed measures of depressive symptoms, perceived criticism, dyadic adjustment, dysfunctional attitude, and self-esteem. In Study 2, sixty-three couples participated in the study. Each couple completed measures of perceived criticism, depressive symptoms and personality styles and discussed about their marital conflicts for 30-45 minutes. Their discussions were tape-recorded and analyzed on their communication behaviors using the Korean version of Conflict Rating system(Heavy et al., 1993). Results indicated that the perceived criticism scale had a satisfactory test-retest reliability( $r=.60$ ).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perceived criticism and concurrent depression, and between perceived criticism and depression of three months after. Perceived criticism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ysfunctional attitude and sociotropy personality styl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criticism, dyadic adjustment, and dyadic communication behaviors.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